

이슈분석 2011-5 결과보고서

2010 서울지역의 성별·연령계층별 고용구조 분석 - 지역고용조사 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 분석 배경과 목적

-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은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이끌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용 없는 성장’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수명을 점차 연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장년층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 인력의 범주에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연령계층별·성별 일자리 정책의 세분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은 전체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 및 직업에서 어떠한 고용구조를 갖는지에 대한 현상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에서는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고용조사¹⁾’를 2001년부터 실시하여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있음
 - 조사결과 중 서울지역의 고용구조 특성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하여 서울지역의 고용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서울시 성별·연령계층별로 일자리 정책에의 시사점을 발견하고, 특히 연령계층별 여성일자리 직종 발굴 및 일자리 사업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지역별고용구조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생산 및 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1항 및 제18조

□ 조사대상: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인 자

1)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0년 9월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조사규모: 전국175,000가구
- 조사기간: 2010. 9. 12 ~ 10. 18
- 조사항목: 총32개 항목

- 본 분석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전체 데이터 가운데 서울지역 데이터만을 추출하고, 성별·연령별 고용구조를 분석하여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서울지역 고용조사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지역별 고용조사의 시도별 응답자 분포
 - 총354,508명의 응답자 중 여성이 53.2%, 남성 46.8%를 차지하고 있음
 - 시도별로 서울지역의 응답자는 29,508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인구의 8.3%임. 서울지역 응답자 중 여성 52.6%, 남성 47.4%로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약5.2%p 높음

[표 1-1] 시도별 지역별고용조사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행정구역	성별		전체
	여자	남자	
서울특별시	15,529 (52.6)	13,979 (47.4)	29,508 (8.3)
부산광역시	9,011 (52.5)	8,162 (47.5)	17,173 (4.8)
대구광역시	4,776 (53.2)	4,197 (46.8)	8,973 (2.5)
인천광역시	5,640 (52.3)	5,141 (47.7)	10,781 (3.0)
광주광역시	2,880 (52.8)	2,571 (47.2)	5,451 (1.5)
대전광역시	2,974 (52.7)	2,665 (47.3)	5,639 (1.6)
울산광역시	2,917 (51.7)	2,721 (48.3)	5,638 (1.6)
경기도	34,704 (52.4)	31,576 (47.6)	66,280 (18.7)
강원도	14,934 (52.8)	13,374 (47.2)	28,308 (8.0)
충청북도	10,623 (52.8)	9,497 (47.2)	20,120 (5.7)
충청남도	14,496 (52.9)	12,902 (47.1)	27,398 (7.7)
전라북도	12,381 (54.6)	10,312 (45.4)	22,693 (6.4)
전라남도	18,039 (54.6)	14,996 (45.4)	33,035 (9.3)
경상북도	20,141 (53.8)	17,270 (46.2)	37,411 (10.6)
경상남도	17,103 (53.8)	14,679 (46.2)	31,782 (9.0)

제주특별자치도	2,316 (53.6)	2,002 (46.4)	4,318 (1.2)
계	188,464 (53.2)	166,044 (46.8)	354,508 (100.0)

출처: 통계청, 2010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서울지역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교육정도

- 응답자의 성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초졸과 대졸 학력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특징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과 남성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연령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즉, 저학력에서 여성 60대, 70대 이상 응답자 비율이 남성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는 반면, 대졸이상의 학력에서 50대 이상 남성 비율이 여성의 2~3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고졸의 비중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대는 초졸 43.6%로 50대와 60대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표 1-2] 응답자의 성별·연령계층별 학력 분포

(단위: %, 명)

학력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초졸이하	3.0	.6	3.8	14.5	43.6	73.4	15.5 (2,413)	3.9	.8	2.7	9.0	20.4	35.5	8.0 (1,117)
중졸	18.9	1.7	9.6	24.1	24.3	11.0	14.6 (2,274)	22.7	1.8	5.7	14.3	19.2	17.9	12.8 (1,791)
고졸	39.7	36.5	51.5	43.9	23.2	12.2	37.8 (5,865)	47.5	31.7	38.7	41.7	37.7	24.2	38.7 (5,415)
대졸이상	38.3	61.2	35.1	17.5	8.8	3.4	32.0 (4,977)	25.8	65.6	52.9	35.0	22.7	22.4	40.5 (5,656)
총계	100.0 (3,763)	100.0 (2,957)	100.0 (3,009)	100.0 (2,651)	100.0 (1,767)	100.0 (1,362)	100.0 (15,529)	100.0 (3,321)	100.0 (2,835)	100.0 (2,907)	100.0 (2,331)	100.0 (1,610)	100.0 (975)	100.0 (13,979)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2. 서울지역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 성별·연령계층별 활동상태

- 경제활동상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상태를 의미함.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응답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30대 52.1%로 가장 높으며, 40대 57.9%, 50대 46.1%이며, 60대에선 급격히 감소하여 약 22%에 불과함. 한편 남성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하였다는 응답이 40대 약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86.3%, 50대 83.7%로 50대에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여성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육아 및 가사 등 무급가족종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50대와 60대의 무급가족종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성별/연령별 활동상태

(단위: 명, %)

활동상태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일하였음	40.4	52.1	57.9	46.1	21.9	6.2	41.9 (6,501)	34.5	86.3	89.9	83.7	50.7	16.0	65.3 (9,128)
일시휴직	.2	1.3	.3	.5	.2	.0	.5 (73)	.1	.7	.4	.9	.7	.1	.5 (69)
구직활동	1.8	1.8	.8	.8	.3	.1	1.1 (174)	2.3	3.2	2.0	1.8	1.1	.1	2.1 (289)
발령대기	.1	.0	.0	.0	.0	.0	.0 (3)	.1	.0	.0	.0	.0	.0	.0 (3)
육아 및 가사	4.9	39.3	37.5	47.5	55.5	34.1	33.4 (5,183)	.0	.1	.4	.7	1.7	.9	.5 (71)
학생(정규교육기관)	41.7	.5	.3	.0	.0	.0	10.3 (1,596)	48.5	.7	.0	.0	.1	.0	11.7 (1,634)
취업준비	3.1	.0	.0	.0	.0	.0	.8 (118)	4.1	.1	.0	.0	.0	.0	1.0 (140)
진학준비	4.9	1.8	.3	.2	.1	.0	1.6 (254)	5.6	4.6	1.1	.6	.3	.0	2.6 (367)
연로 및 심신장애	.4	.5	1.4	2.0	20.2	58.2	8.3 (1,286)	.4	.7	2.0	3.8	33.7	78.3	10.6 (1,486)
군입대 대기	.0	.0	.0	.0	.0	.0	.0 (1)	1.5	.0	.0	.0	.0	.0	.4 (49)
결혼준비	.3	.3	.0	.0	.0	.0	.1 (20)	.0	.0	.0	.0	.1	.0	.0 (2)
쉬었음	2.0	2.0	1.3	2.4	1.5	1.4	1.8 (283)	2.3	3.3	3.8	8.0	11.2	4.2	4.9 (688)
기타	.2	.3	.2	.3	.3	.1	.2 (37)	.5	.3	.2	.6	.4	.4	.4 (53)
소계	1000 (3,763)	1000 (2,957)	1000 (3,009)	1000 (2,651)	1000 (1,767)	1000 (1,382)	1000 (15,529)	1000 (3,321)	1000 (2,835)	1000 (2,907)	1000 (2,331)	1000 (1,610)	1000 (975)	1000 (13,979)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성별·연령별 취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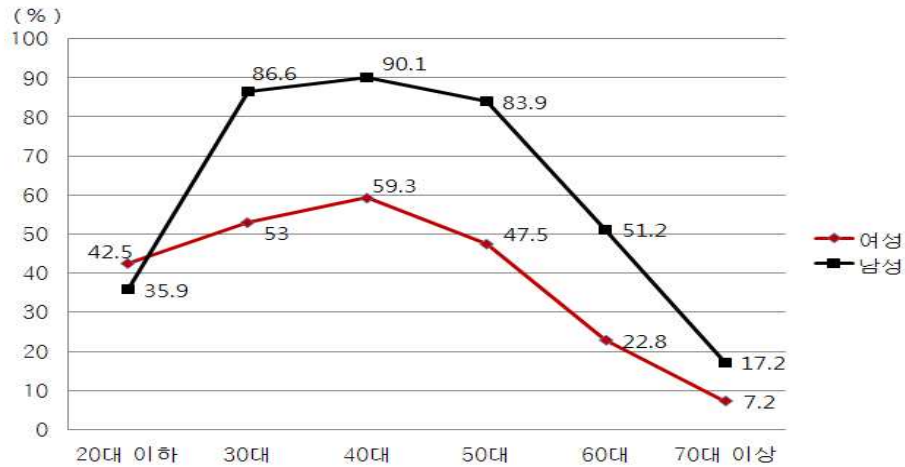
-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비율이 높은 반면, 그 외의 다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자 비율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 함.
- 남녀 모두 60대부터는 취업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0대 여성의 취업률은 47.5%로 남성 83.9%의 절반수준을 조금 넘고 있음. 60대 이후 취업률은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1-4] 성별/연령별 취업자비율

(단위: 명, %)

구직활동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취업	42.5	53.0	59.3	47.5	22.8	7.2	43.2 (6,715)	35.9	86.6	90.1	83.9	51.2	17.2	65.9 (9,210)
비취업	57.5	47.0	40.7	52.5	77.2	92.8	56.8 (8,814)	64.1	13.4	9.9	16.1	48.8	82.8	34.1 (4,769)
총계	1000 (3,763)	1000 (2,957)	1000 (3,009)	1000 (2,651)	1000 (1,767)	1000 (1,382)	1000 (15,529)	1000 (3,321)	1000 (2,835)	1000 (2,907)	1000 (2,331)	1000 (1,610)	1000 (975)	1000 (13,979)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그림 1-1] 성별/연령별 취업비율

○ 성별·연령별 구직여부

-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약 95% 이상이 구직활동을 구해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직활동에서 대부분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이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유사하게 구직활동 비율이 낮았지만 3,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직활동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도 18%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70대 이상은 거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성별/연령별 구직비율

(단위: 명, %)

구직활동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구해보았음	5.5	5.8	4.0	3.4	1.2	.2	3.6 (313)	6.5	37.0	29.7	18.0	3.9	.6	9.6 (453)
구해보지 않았음	94.5	94.2	96.0	96.6	98.8	99.8	96.4 (8,428)	93.5	63.0	70.3	82.0	96.1	99.4	90.4 (4,247)
총계	1000 (2,154)	1000 (1,352)	1000 (1,214)	1000 (1,378)	1000 (1,361)	1000 (1,282)	100.0 (8,741)	1000 (2,126)	1000 (362)	1000 (276)	1000 (356)	1000 (774)	1000 (806)	100.0 (4,700)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3. 서울지역 실업자 실태

○ 성별·연령별 취업가능성

-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 직장이 있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남녀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바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50대, 60대도 85%이상이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1-6] 성별/연령별 취업가능성 비율

(단위: 명, %)

취업가능성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있었음	89.9	92.4	83.7	87.2	88.2	100.0	89.1 (279)	92.8	92.5	96.3	87.5	90.0	60.0	92.1 (417)
없었음	10.1	7.6	16.3	12.8	11.8	.0	10.9 (34)	7.2	7.5	3.7	12.5	10.0	40.0	7.9 (36)
총계	100.0 (119)	100.0 (79)	100.0 (49)	100.0 (47)	100.0 (17)	100.0 (2)	100.0 (313)	100.0 (138)	100.0 (134)	100.0 (82)	100.0 (64)	100.0 (30)	100.0 (5)	100.0 (453)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성별·연령별 구직경로 및 방법

- 실업자들의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대중매체나 친척, 친구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층의 경우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척·친구·동료 등 대인관계를 통한 구직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공공직업 알선기관을 통한 구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7] 성별/연령별 구직경로

(단위: 명, %)

구직경로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공공직업 알선기관	15.9	19.5	25.0	19.7	25.0	66.7	19.5 (87)	11.1	12.7	11.3	18.0	19.5	16.7	13.0 (91)
민간 직업알선기관	10.2	10.6	15.6	18.2	16.7	33.3	12.8 (57)	13.9	11.3	16.5	15.7	26.8	16.7	14.6 (102)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	45.5	38.9	31.3	30.3	16.7	-	37.7 (168)	44.4	40.4	27.1	30.3	31.7	16.7	37.1 (259)
학교, 학원 추천	5.1	7.1	0.0	1.5	0.0	-	4.0 (18)	9.3	1.9	0.0	0.0	0.0	0.0	3.4 (24)
친척, 친구, 동료	19.9	23.9	28.1	27.3	41.7	-	24.2 (108)	19.0	31.5	42.1	34.8	22.0	50.0	29.7 (207)
기타	3.4	0.0	0.0	3.0	0.0	-	1.8 (8)	2.3	2.3	3.0	1.1	0.0	0.0	2.1 (15)
총계	100.0 (176)	100.0 (113)	100.0 (64)	100.0 (66)	100.0 (24)	100.0 (3)	100.0 (446)	100.0 (216)	100.0 (213)	100.0 (133)	100.0 (89)	100.0 (41)	100.0 (6)	100.0 (698)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구직방법을 살펴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알선기관을 통한 구직등록이나 사업체를 통한 직접적인 원서제출의 방법이 가장 많았음.

[표 1-8] 성별/연령별 구직방법

(단위: 명, %)

구직방법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시험응시	18.6	7.6	0.0	5.3	4.3	0.0	10.5 (43)	12.7	8.3	2.7	3.8	0.0	0.0	7.5 (45)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33.5	36.2	50.0	36.8	56.5	100.0	38.5 (157)	32.3	36.1	37.2	28.2	39.5	50.0	34.4 (208)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	44.3	46.7	40.7	47.4	30.4	0.0	43.9 (179)	51.3	47.8	50.4	52.6	55.3	33.3	50.3 (304)
자영업준비	0.0	4.8	5.6	5.3	0.0	0.0	2.7 (11)	2.1	6.1	8.0	11.5	5.3	16.7	6.0 (36)
기타	3.6	4.8	3.7	5.3	8.7	0.0	4.4 (18)	1.6	1.7	1.8	3.8	0.0	0.0	1.8 (11)
총계	100.0 (167)	100.0 (105)	100.0 (54)	100.0 (57)	100.0 (23)	100.0 (2)	100.0 (408)	100.0 (189)	100.0 (180)	100.0 (113)	100.0 (78)	100.0 (38)	100.0 (6)	100.0 (604)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성별·연령별 구직기간

- 구직기간은 여성이 평균 2.9개월, 남성 3.5개월로 남성보다 여성의 구직기간이 0.6개월 짧은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 연령별로 구직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표 1-9] 성별/연령별 구직기간

(단위: 개월)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총평균
여성	2.9	2.9	3.0	2.9	2.4	2.0	2.9
남성	3.5	3.7	3.7	3.3	3.3	1.8	3.5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4. 서울지역 비경제활동인구

○ 성별·연령별 취업희망 여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과 남성 모두 90% 이상 직장을 갖길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이 자발적인 실업상태임을 알 수 있음

[표 1-10] 성별/연령별 취업희망 여부

(단위: 명, %)

취업희망 여부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희망	3.0	5.6	6.3	3.8	2.8	.9	3.6 (305)	2.6	23.7	22.7	15.8	9.8	2.9	6.9 (292)
비희망	97.0	94.4	93.7	96.2	97.2	99.1	96.4 (8,123)	97.4	76.3	77.3	84.2	90.2	97.1	93.1 (3,955)
총계	100.0 (2,035)	100.0 (1,273)	100.0 (1,165)	100.0 (1,331)	100.0 (1,344)	100.0 (1,280)	100.0 (8,428)	100.0 (1,988)	100.0 (228)	100.0 (194)	100.0 (292)	100.0 (744)	100.0 (801)	100.0 (4,247)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성별·연령별 비구직 사유

- 직장 갖기를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남녀 모두 원하는 임금수준 및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이 일거리가 없거나 이전에 구직활동을 했는데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40대,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30대는 육아, 60대 이상은 고용주가 연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전공이나 경력과 맞는 일거리가 없거나 원하는 고용조건이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대, 50대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40대는 희망하는 근로조건이 일자리가 없어서,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까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층 실업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구인처와 구직자의 수요가 서로 맞지 않은 미스매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한편,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연령이 높은 사람들을 꺼려하는 편견이 오히려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표 1-11] 성별/연령별 비구직 사유

(단위: 명, %)

비구직 사유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19.4	12.7	5.5	4.0	.0	.0	8.9 (27)	19.2	20.4	9.1	19.6	9.6	.0	14.0 (41)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16.1	14.1	13.7	12.0	18.4	18.2	14.8 (45)	19.2	24.1	27.3	21.7	17.8	8.7	20.5 (60)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3.2	1.4	6.8	8.0	13.2	9.1	5.9 (18)	.0	7.4	6.8	2.2	5.5	8.7	4.8 (1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6.5	2.8	8.2	4.0	.0	.0	4.6 (14)	13.5	7.4	6.8	.0	1.4	.0	5.1 (1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	1.6	1.4	4.1	14.0	31.6	45.5	9.5 (29)	1.9	.0	2.3	8.7	32.9	52.2	14.4 (42)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2.6	15.5	26.0	30.0	15.8	18.2	22.0 (67)	17.3	31.5	22.7	26.1	23.3	26.1	24.3 (71)
육아	3.2	28.2	11.0	.0	.0	.0	9.8 (30)	-	-	-	-	-	-	-
가사	4.8	11.3	16.4	14.0	10.5	.0	11.1 (34)	-	-	-	-	-	-	-
통학	12.9	.0	1.4	.0	.0	.0	3.0 (9)	13.5	.0	2.3	.0	.0	.0	2.7 (8)

심신장애	.0	5.6	5.5	12.0	5.3	9.1	5.6 (17)	5.8	1.9	13.6	15.2	9.6	.0	8.2 (24)
기타	9.7	7.0	1.4	2.0	5.3	.0	4.9 (15)	9.6	7.4	9.1	6.5	.0	4.3	5.8 (17)
총계	1000 (62)	1000 (71)	1000 (73)	1000 (50)	1000 (38)	1000 (11)	1000 (305)	1000 (52)	1000 (54)	1000 (44)	1000 (46)	1000 (73)	1000 (23)	1000 (292)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5. 서울지역 고용구조 분석결과

○ 성별·연령별 고용산업 구조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 희망하는 산업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남성은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선호하는 산업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남.
 -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외에 2, 30대는 교육서비스업, 4, 50대는 숙박 및 음식점업, 60대에서는 자가 소비생산 활동, 70대 이상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외에 20대 이하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3, 40대는 제조업, 50대는 건설업, 60대에서는 운수업, 70대 이상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12] 성별/연령별 고용산업

(단위: 명, %)

산업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1	.1	.6	.0	.1 (6)	.0	.1	.2	.3	.7	1.0	.2 (23)
광업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3)
제조업	6.6	9.1	14.6	13.2	6.1	6.3	10.4 (785)	9.7	12.9	15.0	13.0	8.5	5.9	125 (1,23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2	.0	.0	.0	.1 (7)	.1	.5	.6	.6	.0	1.0	.4 (4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1	.1	.0	.0	.0	.0 (3)	.1	.1	.1	.2	.5	.0	.2 (16)
건설업	2.0	2.0	1.6	1.6	1.1	.0	1.7 (130)	5.9	9.2	14.9	18.2	12.5	5.9	124 (1,226)
도매 및 소매업	17.0	19.8	20.0	17.0	17.2	25.2	186 (1,403)	21.3	18.1	16.5	14.3	13.3	16.3	168 (1,661)
운수업	2.1	1.1	1.1	1.3	.6	.8	1.4 (103)	2.9	3.9	7.4	11.6	15.3	10.9	7.5 (743)
숙박 및 음식점업	10.6	7.5	16.8	21.2	12.7	4.7	134 (1,015)	13.8	6.5	4.9	4.6	4.7	2.5	6.4 (6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9	5.7	2.1	1.0	.4	.0	3.5 (268)	9.4	11.4	5.8	2.6	1.0	.5	6.6 (648)
금융 및 보험업	6.6	7.8	5.8	2.9	3.0	.0	5.7 (428)	5.0	6.2	5.5	3.1	.9	.5	4.6 (4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1.4	2.4	3.9	5.1	2.4	2.1 (158)	.9	2.2	2.6	5.5	10.8	13.4	3.8 (37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4	7.0	1.9	1.0	.0	.0	4.7 (352)	8.2	10.0	6.2	3.6	2.7	5.9	6.6 (6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3.3	3.0	5.9	11.9	7.9	4.4 (333)	3.5	3.5	3.8	5.8	13.5	11.4	5.2 (5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	3.1	3.4	3.1	8.3	27.6	3.6 (273)	1.6	3.0	4.6	4.8	4.0	12.4	3.9 (386)
교육 서비스업	15.3	15.5	11.1	6.2	4.0	.0	11.7 (881)	6.7	4.0	4.5	4.9	4.1	3.5	4.7 (4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6	9.9	7.3	6.5	6.1	10.2	8.8 (666)	1.8	2.0	1.6	1.3	1.1	3.0	1.7 (1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2.0	1.1	1.3	1.1	.0	1.7 (126)	5.5	2.2	1.0	1.2	.5	.5	1.9 (1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	4.1	5.7	6.8	6.4	2.4	5.1 (389)	3.5	4.0	4.6	4.1	5.2	5.0	4.2 (41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	.5	1.7	6.9	15.0	12.6	3.0 (228)	.1	.0	.0	.1	.4	.5	.1 (10)
국제 및 외국기관	.0	.0	.1	.1	.4	.0	.1 (5)	.1	.2	.1	.1	.1	.0	.1 (11)
소계	100.0 (1,874)	100.0 (1,776)	100.0 (1,921)	100.0 (1,390)	100.0 (472)	100.0 (127)	100.0 (750)	100.0 (1,383)	100.0 (2,598)	100.0 (2,718)	100.0 (2,055)	100.0 (919)	100.0 (202)	100.0 (987)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성별·연령별 종사직업

- 성별 종사직업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전문가와 사무관련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여성의 경우 30대 이하까지는 전문가나 사무관련 직업을 선호하지만 40대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나 판매 종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50대부터는 단순노무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직업 및 사회경험이 없이 오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참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직업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남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40대까지는 전문가 및 사무 관련직을 희망하지만 50대의 경우에는 기능원 및 장치, 기계조작 관련직을 선호하고 있음. 그리고 60대 이상부터는 여성과 유사하게 단순노무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표 1-13] 성별/연령별 종사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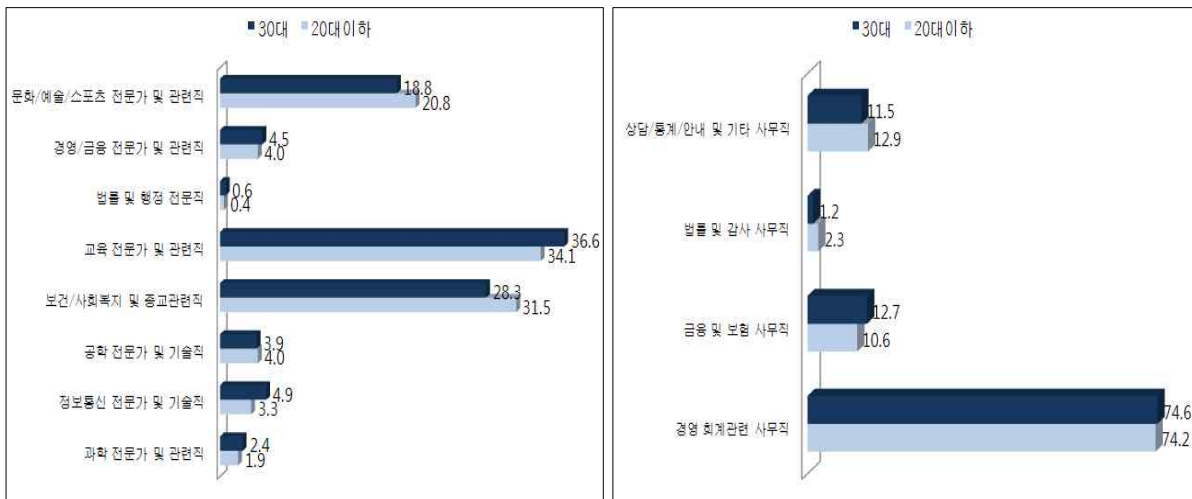
(단위: 명, %)

직업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관리자	.1	.3	.5	.9	.6	.0	.4 (31)	.0	.7	3.2	4.3	2.2	1.5	2.2 (2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5	34.2	18.0	10.9	3.4	1.6	23.6 (1,778)	26.0	31.0	22.7	15.6	11.3	11.9	22.6 (2,221)
사무 종사자	35.0	32.6	16.7	7.6	4.4	.8	22.2 (1,673)	20.0	24.2	20.0	14.6	9.4	9.9	18.8 (1,847)
서비스 종사자	12.1	9.1	20.2	21.9	12.7	4.7	15.2 (1,142)	15.8	8.0	5.7	5.5	4.7	4.0	7.5 (742)
판매 종사자	13.9	15.9	21.2	19.1	15.5	12.6	17.2 (1,298)	16.0	14.3	13.0	11.8	10.5	9.4	13.2 (1,298)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	.0	.1	.1	.6	.0	.1 (6)	.4	.2	.3	.5	.9	1.5	.4 (4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	3.3	9.5	8.8	5.1	4.7	5.4 (410)	8.6	10.8	15.7	18.4	11.5	3.5	13.4 (1,315)
장치, 기계조작 및	.6	.7	1.8	1.7	1.5	.8	1.2	4.1	4.9	10.9	15.2	18.6	11.4	10.0

조립 종사자							(89)							(984)
단순노무 종사자	1.9	3.9	12.1	29.2	56.1	74.8	146 (1,102)	9.1	6.0	8.6	14.1	30.9	47.0	12.0 (1,179)
총계	1000 (1,861)	1000 (1,761)	1000 (1,919)	1000 (1,389)	100.0 (472)	100.0 (127)	100.0 (7,529)	1000 (1,378)	1000 (2,386)	1000 (2,712)	1000 (2,048)	100.0 (918)	100.0 (202)	100.0 (9,844)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종사 직종과 관련하여 여성의 종사비율이 높은 직업군을 연령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함
 - 2, 30대의 경우 전문가분야에서 교육이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종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분야에서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의 종사 비율이 70% 이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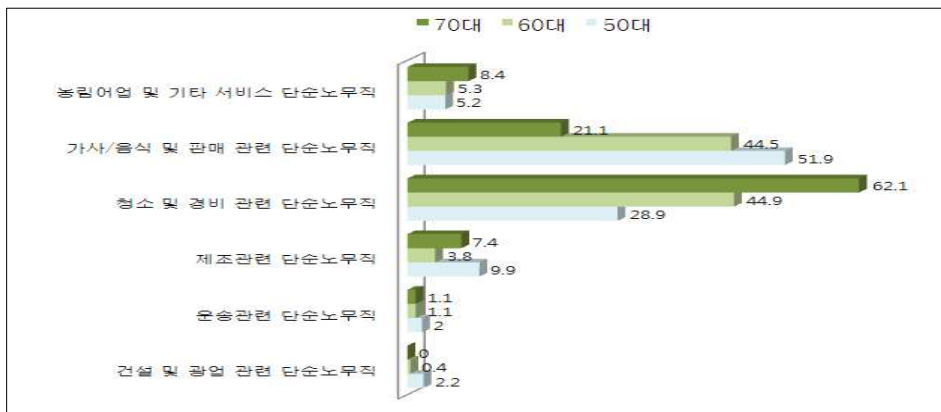
[그림 1-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사무 종사자 비율 (단위: %)

- 40대는 판매분야의 종사중에서 매장판매직의 비율이 가장 많고, 서비스 부문에 서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 직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음
- 50대는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중 조리 및 음식서비스 직종의 종사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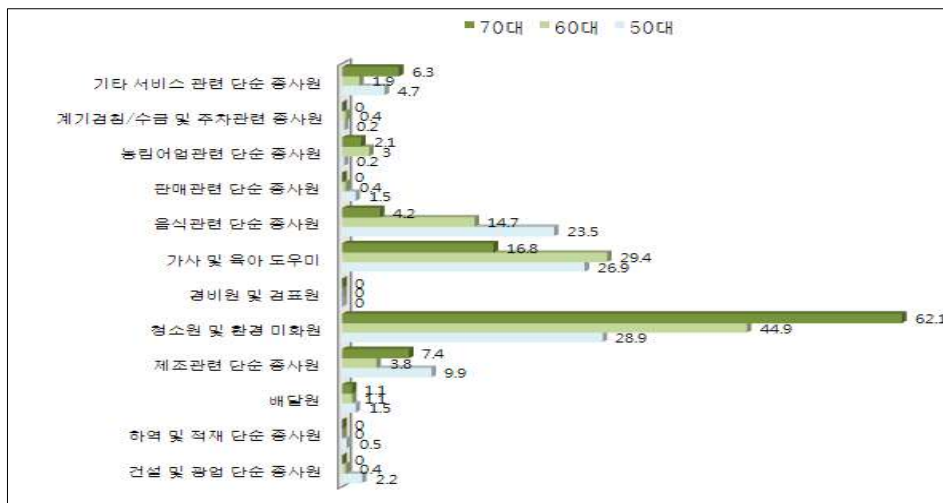
[그림 1-3] 판매종사자/서비스 종사자 비율 (단위: %)

- 50대 이상부터 높은 종사비율을 보이고 있는 단순노무부문에서는 50대는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종의 비율이 높고, 60대에서는 청소 및 경비 관련 직종과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직종에 대한 종사자가 가장 많음. 70대 또한 청소 및 경비 관련 직종의 종사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1-4]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 (단위:%)

- 단순노무종사자들의 직종을 세분류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고, 5,60대의 경우 가사 및 육아도우미에 대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5] 단순노무 종사자 세분류 (단위: %)

○ 성별·연령별 종사상 지위

- 20대부터 40대 청·장년층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시근로자나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자영업의 경우에도 고용원이 없는 소규모의 자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2, 30대 상용근로자가 60%를 넘고 있으나, 40대에 이르면 상용근로자 비율은 38%로 급감하고 있음. 이는 자녀양육기에 풀타임 근로의 한계로 판단됨. 50대는 약 29%, 60대는 그 절반 수준인 약16%, 70대 이상은 3.1%로 급감하고 있음. 임시근로자는 상용근로가 어려운 40대부터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60대 32.4%, 70대 이상은 40%를 넘고 있음. 또한 일용근로자 비율도 5, 60대 약 12~15%를 차지하며 70대 이상은 약 27%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냄

[표 1-14] 성별/연령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종사상지위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상용근로자	62.4	62.7	38.1	29.1	15.9	3.1	46.2 (3,496)	54.5	70.1	53.3	41.8	28.3	17.8	52.4 (5,179)
임시근로자	21.3	17.3	25.0	25.0	32.4	40.9	23.0 (1,740)	26.5	10.5	7.4	8.2	18.7	35.1	12.7 (1,250)
일용근로자	8.8	3.4	8.2	12.4	15.3	26.8	8.7 (660)	10.8	3.8	8.0	9.9	11.3	12.9	8.1 (80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4.0	4.5	6.0	3.0	.8	3.6 (270)	1.2	7.4	15.6	16.3	9.9	10.9	10.9 (1,0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5	8.8	11.5	14.6	22.2	24.4	10.8 (818)	5.0	7.8	15.4	23.3	30.6	22.3	15.1 (1,495)
무급가족종사자	1.3	3.8	12.8	12.9	11.2	3.9	7.6 (576)	2.0	.5	.3	.5	1.2	1.0	.7 (71)
총계	100 (1,874)	100 (1,776)	100 (1,921)	100 (1,390)	100 (472)	100 (127)	100 (7,560)	100 (1,383)	100 (2,598)	100 (2,718)	100 (2,055)	100 (919)	100 (202)	100 (9,875)

자료: KOSIS 2010 지역고용조사결과 원자료 분석

○ 성별·연령별 희망최소 소득수준

- 여성보다는 남성의 희망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임. 여성의 경우에는 월평균 희망소득 수준으로 100~150만원 미만을 선호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150~2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희망하는 소득수준이 낮아짐.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 월평균 소득으로 150~200만원 사이를 가장 선호하고, 30대부터 50대는 100~150만원, 60대 이상은 50~100만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와 30대, 50대의 남성은 150~200만원을 가장 선호하고, 60대는 100~150만원, 70대 이상은 50~100만원 미만을 가장 희망하고 있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희망소득 수준도 함께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5] 성별/연령별 희망소득수준

(단위: 명, %)

구직경로	여성							남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소계
50만원 미만	1.7	.0	1.6	.0	7.3	23.1	1.9 (12)	.5	.0	.8	.9	2.9	7.1	1.1 (8)
50~100만원 미만	2.8	6.0	18.9	30.9	72.7	53.8	18.4	6.3	.5	2.4	6.4	26.2	50.0	8.6

							(114)							(64)
100~150만원 미만	23.2	34.0	44.3	43.3	18.2	15.4	32.5 (201)	14.2	11.2	12.7	19.1	39.8	28.6	18.0 (134)
150~200만원 미만	40.3	22.0	19.7	15.5	1.8	7.7	23.8 (147)	36.8	28.7	28.6	29.1	10.7	3.6	27.4 (204)
200~250만원 미만	21.5	22.0	8.2	7.2	.0	.0	14.4 (89)	23.7	28.7	27.8	22.7	12.6	7.1	23.4 (174)
250~300만원 미만	8.3	8.7	1.6	1.0	.0	.0	5.0 (31)	11.6	18.1	11.9	13.6	6.8	3.6	12.6 (94)
300~400만원 미만	1.7	4.0	2.5	1.0	.0	.0	2.1 (13)	3.7	8.0	11.1	7.3	1.0	.0	6.0 (45)
400만원 이상	.6	3.3	3.3	1.0	.0	.0	1.8 (11)	3.2	4.8	4.8	.9	.0	.0	3.0 (22)
총계	100.0 (181)	100.0 (150)	100.0 (122)	100.0 (97)	100.0 (55)	100.0 (13)	100.0 (618)	100.0 (190)	100.0 (188)	100.0 (126)	100.0 (110)	100.0 (103)	100.0 (28)	100.0 (745)

□ 분석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본 이슈분석은 서울지역의 고용구조의 특성을 성별 변인과 연령 변인의 두 가지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음. 특히 성별 변인과 관련하여 ‘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본 분석의 시사점도 이 두 개 변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제안하고자 함
-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가사와 출산·자녀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참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은 남성의 경제활동상태와 비교하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남성의 경우 활동상태에서 ‘일하였음’이라는 응답이 20대부터 50대까지 80%를 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 반면, ‘육아 및 가사’에 해당하는 응답 역시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50%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점이 말해주고 있음
 - 경제활동 능력이 왕성한 3,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이후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여기에는 생활방식이나 태도의 변화와 같은 인식적 개선부터 그와 같은 인식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에서 성별·연령별 비구직 사유에 대한 분석은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연령계층별 응답의 차이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음
 - 20대 응답자는 자신의 능력과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현실에 비해 높는데 따른 일자리 단념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 30대 여성의 경우, ‘육아’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력단절이후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40대와 50대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미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60대와 70대 이상은 노동시장에서 ‘연령’요인으로 배제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고령층이 잘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 응답자의 종사산업 및 직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산업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제외한 특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 20대 여성의 종사산업은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40대와 50대는 유사한 종사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즉,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종사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40대에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나 50대는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이 차이임
 - 60대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70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종사 비율이 전체의 1/4이상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지원의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판단됨

- 종사직업 역시 연령계층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여성의 경우,
 - 20대와 30대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40대와 50대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50대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특별한 직업능력이 없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60대 이상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종사직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사 직종의 연령별 특징은 직종의 연령계층에 따른 전문화와 세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종사직종의 연령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연령 맞춤형 직종 개발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끝.